

현시기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 선 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체들에서 가격제정사업을 바로해나가는것은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해나가자면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는것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원가를 보상하며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바로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원가계산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제정사업은 원가를 정확히 타산하는데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원가가 가격의 기본구성요소로 될뿐아니라 가격수준결정에서 출발점으로, 가격균형설정에서 대비척도의 하나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기업체들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정확히 확정하자면 원가계산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원가계산체계를 바로세워야 개별적제품의 원가수준을 바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격을 바로 정하며 기업체경영활동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옳바로 세울 수 있다.

원가계산은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 또는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크기를 확정하는 사업으로서 원가계산을 바로하자면 정연한 원가계산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원가계산체계란 생산물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확립된 사업질서와 기구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체들에서 원가계산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기업체들이 원가공간을 잘 리용하여 원가계산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이에 기초하여 가격을 바로 제정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정연한 원가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기업체들에서 원가계산을 집중적계산체계와 분산적계산체계를 결합시켜 조직하여야 한다.

집중적계산체계는 비용지출단위인 직장, 작업반, 해당 부서들에서 작성된 생산비지출에 대한 모든 시초서류들을 재정회계부서에 집결시켜 그것을 원가계산대상별로 가르고 종합가공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의 우점은 원가계산사무를 전문화, 컴퓨터화하여 신속정확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계산의 중복을 없애고 계산사무공정을

훨씬 줄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서는 생산현장과 생산자대중으로부터 떨어져 계산이 진행되기때문에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분산적계산체계는 비용지출단위인 직장, 작업반들에서 해당 비용지출서류들에 기초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이 자료를 재정회계부서에서 종합가공하여 기업소적인 완전원가를 계산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의 우점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비지출정형을 직접 계산하고 분석타산함으로써 원가를 낮추기 위한 절약투쟁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서는 원가계산사업이 분산되어 진행되기때문에 계산의 신속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며 원가계산을 컴퓨터화하는데서 불합리한 제한성을 가진다.

기업체들에서는 집중적계산체계와 분산적계산체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우점을 살리고 부족점을 극복하면서 점차 계산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고 원가계산자료와 자동통보체계를 받아들여 집중적계산체계로 넘어가는 방향에서 원가계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생산물원가계산에서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생산물의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 타산하여 경제계산의 수단인 가격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정할수 있다.

현시기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를 바로 타산하는것이다.

기업체들에서 단위당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는것은 개별적제품의 원가수준을 밝히고 가격을 바로 정하며 다른 기업체의 단위당 원가와 대비하여 경영활동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체들의 생산물 단위당 원가타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원가계산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는것이다.

기업체들의 생산물 단위당 원가타산에서 원가계산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는것은 원가계산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달라지기때문이다.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는 원가계산대상을 개별적인 생산물로 설정하였는가 또는 원가계산대상을 유사한 품종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타산된다.

기업체들에서 원가를 타산하는 최종목적은 외부에 실현되는 생산물의 종류별로 그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냄으로써 기업체의 리익과 손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생산물의 종류별로 가격을 옳바로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기초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원가계산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생산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생산물별로 정확히 갈라서 계산할수 있게 계산대상을 정해야 한다.

기업체들에서는 생산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생산물별로 정확히 갈라서 계산할수 있게 원가계산대상을 설정하여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의 생산물 단위당 원가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간접비배분방법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다.

기업체들에서 간접비배분방법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단위당 원가타산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간접비란 여러 종류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으로서 제품별로 직접

비용을 계산할수 없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생산과정에 지출된 비용가운데서 해당 생산물을 만드는데 직접 소비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동력비, 기본생산노동자들의 생활비 등은 그 소비를 반영한 서류들에 기초하여 원가계산대상별로 직접 계산할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지출된 비용들은 직접비와는 달리 원가계산기간에 지출된것을 종합적으로 계산, 장악하였다가 월말에 원가를 계산할 때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계산대상별로 나누어준다. 일반적으로 간접비에는 감가상각비, 직장일반비, 기업소일반비와 보조생산비, 판매비가 들어간다. 전력, 채취공업부문의 기업소와 같이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며 원가계산대상이 단일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지출이 다 직접비로 되며 간접비의 배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품종이 다양하며 날을 따라 제품의 가치수가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간접비의 배분문제는 원가계산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체들에서는 기술공정과 생산조직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간접비의 종합과 배분계산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현시기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합리적인 가격타산방법을 적용하는것이다.

기업체들의 가격타산방법에는 가격타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기업체들의 가격타산에 리용하는 방법에는 우선 원가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원가에 기초한 방법은 생산물의 원가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일정한 순소득을 타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실적원가에 기초한 방법, 가공비에 기초한 방법, 계획원가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실적원가에 기초한 방법은 실적원가를 계산기초로 하여 일정한 순소득을 더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다.

실적원가는 기업체들에서 단위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실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화폐로 표현한것이다.

가격은 실적총원가와 순소득총액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 순소득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text{가격} = \text{실적원가}(1 + \text{순소득률})$$

$$\text{순소득률} = \frac{\text{순소득총액}}{\text{총원가}} \times 100$$

이 방법은 기업체들의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일치되어있는 제품에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생산기술적조건이 비교적 낮은 기업체들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적합치 않다.

가공비에 기초한 방법은 원가를 보상하는 조건에서 기업체들에서 제품가공으로 새로 증가하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순소득규모가 해당 기업체에서 지출하는 가공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가공공업부문의 기업체들과 협

동생산품의 가격제정에서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가공비에 기초하여 가격타산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가격=기본원자재비+가공비×(1+가공비에 기초한 순소득률)

$$\text{가공비에 기초한 순소득률} = \frac{\text{순소득총액}}{\text{가공비총액}} \times 100$$

계획원가는 기업체들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합리화하여 앞으로의 원가저하방도를 예견한 원가로서 일반적으로 실적원가보다 낮다.

계획원가에 기초한 방법은 기업체들이 장기적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타산방법으로서 경영활동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체들에 적용하며 특히 새로 개발한 제품들에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계획원가에 기초하여 가격타산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가격=계획원가×(1+계획원가에 기초한 순소득률)

$$\text{계획원가에 기초한 순소득률} = \frac{\text{순소득총액}}{\text{계획원가} \times \text{계획생산량}} \times 100$$

기업체들의 가격타산에 리용하는 방법에는 또한 수요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수요에 기초한 방법은 기업체들이 가격정보에 대한 수집과 가공분석과정을 통하여 계획한 판매량을 실현할수 있는 한도에서 소비자가격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자가격을 타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기업체들은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수 없으며 유통부문을 통하여 판매를 실현한다. 따라서 생산기업체들이 수요에 기초한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유통부문에서의 유통비를 보상하고 일정한 순소득을 얻을수 있도록 부가금규모를 타산하여 생산자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의 가격타산에 리용하는 방법에는 또한 대비적방법이 있다.

대비적방법에 의한 가격타산방법은 같은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 제품들을 서로 대비하여 원가와 질적차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대비적방법에 의한 가격타산에서는 주로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체의 제품을 표준으로 하여 원가와 질적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확정한다.

이와 같이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는 원가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를 옳바로 타산하며 합리적인 가격타산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관리의 과학화, 합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제정사업을 바로해나감으로써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